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환율은 직전영업일 대비 7.30원 내린 1,077.20원으로 마감

이날 환율은 직전영업일 대비 7.30원 내린 1,077.2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美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 日 구로다 연임 불확실성 여파로 인한 달러화 약세, 증시 호조, 설 연휴를 앞둔 네고 물량으로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보였다. 오전 중 환율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고 물량에 1,081.90원까지 하락하였지만 결제 물량 등이 나오며 추가 하락을 제한한 채 위안화 절하 고시로 1,083원대로 소폭 상승하였다. 오후 중에는 네고 물량 대거 출회로 직전영업일 대비 7.30원 내린 1,077.2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美 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일본 증시 하락여파로 장중 1년 3개월만에 최저치로 하락하여 106원대로 추락하였다.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1.29원 오른 1,004.71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84.00	1084.00	1076.00	1077.20	1079.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15.19	1020.42	1012.03	1013.28

금일 전망

금일 환율은 1,070원선 부근에서 무거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금일 환율은 1,070원선 부근에서 무거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전영업일 종가 보다 9.90원 내린(스왑포인트 고려) 1,066.75원에 최종호가되었다. 美 CPI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적자 및 보호무역주의 우려, 연휴동안의 美 증시 상승, 엔화 강세등이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역외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 초반까지 하락세 보였으나 일본당국의 구두개입으로 낙폭을 일부 되돌렸고 금일 역시 1,060원대에서는 결제 수요로 하락 폭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60.40 ~ 1077.2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35.19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90원 ↓

■ 美 다우지수 : 25219.38, +19.01p(+0.08%)

■ 선일 현불환 거래량(송합) : 107.2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90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